

실전 토론 개요서(A03)분반

(천지장조5)조	구성원 및 역할	<p>김도현(건설환경공학부)(임시팀장)</p> <p>김현서(건설환경공학부)</p> <p>박지호(생명공학부)</p> <p>신유성(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팀장)</p> <p>박준영(컴퓨터응용수학부)</p>	<p>의견 수렴 및 정리</p> <p>반대의 근거와 핵심 주장 및 찬성주장의 예상 제시</p>	
논제	인공지능의 예술적 창작성 저작권 인정 논제		입장	반대
용어 정의	<p>저작권(창작성)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p> <p>창의성이 함유된 예술의 인정은 인간만 가능하다.</p> <p>인공지능의 예술은 인간들의 예술작품을 학습하여 새로운 예술을 만들거나 특정 예술을 모방 및 모티브 하여 만들 수 있다.</p>			
입론	<p>(1)</p> <p>예술 작품이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의도나 예술가가 부여한 의미 그, 작품을 제작한 예술가의 생애 시점 등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그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예술성을 인정할 수 없다.</p> <p>(2)</p> <p>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원작자의 예술 작품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므로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만약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인간 예술가들의 설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p> <p>(3)</p> <p>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원작자의 예술 작품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므로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만약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인간 예술가들의 설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p>			

<p>핵심 논거에 대한 보충 설명, 반론에 대한 재반박</p>	<p>핵심 논거 (1)에 대한 보충 설명:</p> <p>->수많은 예술 작품에는 그 예술 작품을 그린 예술가의 심정이나, 표현하고자 했던 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때 느낀 그 감정 등이 녹아들어 있다. 이런 인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서사가 담긴 예술 작품들을 인공지능이 비슷하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공감하는 내용들까지 인공지능이 모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공지능이 인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해 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려한다면, 미래에는 인간보다 우월한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싱귤래리티가 나타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일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p>
	<p>반론에 대한 재반박:</p> <p>모방은 인간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방식이다. 특히 예술에서 모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예술에는 AI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아우라(aura)이다. 아우라는 예술가의 삶의 한 시점이면서 예술가의 환경이다. 작품이 창작된 시간, 시대, 장소가 모두 녹아 있는 집합체이다. 아우라는 작품 그 자체이고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간이다. 아무리 AI가 해당 예술가의 방식으로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모방한다 해도 생각하는 인간의 아우라와 그 역사적 의미가 들어있어야만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p> <p>물론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모방'은 꽤나 일리 있는 학습방법이지만, 사람이 모방을 통해 창작을 하는 반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기에 창작이 불가능하다. 그저 짜깁기에 불과하다.</p>
	<p>핵심 논거 (2)에 대한 보충 설명:</p> <p>->이 논거에 찬성하는 근거로는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이 인간의 예술 작품과 비교하여 독창성이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AI 화가의 우승..시대의 흐름인가, 예술의 사망인가' 라는 기사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결국 기존에 존재한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은 인간의 예술 작품을 모방하거나 변형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예술 작품에 대한 존중과 책임역시 부족한 것이므로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예술작품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 틀림없다.</p> <p>(https://www.yna.co.kr/view/AKR20220904008400009)</p>
	<p>반론에 대한 재반박:</p> <p>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은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인공지능이 기존의 작품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더라도, 이는 인공지능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물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한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은 인간의 창작물을 모방한 것이므로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p>
	<p>핵심 논거 (3)에 대한 보충 설명:</p> <p>->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예술 작품에서 추출한 패턴이나 규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을 생성하는 것이지만, 이는 인간의 예술 작품의 본질적인 표현이나 내용을 변형하거나 재조합한 것이므로 인간의 예술 작품의 독특한 개성이나 스타일을 손상시킬 수 있다. 만일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예술 작품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예술 작품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인간 예술가들의 창작 동기를 저하시키고, 인간 예술가들의 설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p>

	<p>반론에 대한 재반박:</p> <p>무작위성은 인공지능 모델에서 조절 가능한 매개변수 중 하나일 수 있다. 개발자는 모델이 생성하는 결과의 무작위성을 조절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무작위성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이는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p>
--	---

<p>질문 및 반박</p>	<p>(1) 사람이 인공지능을 도구처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산출하는 방식 또한 살펴보면 “인간”의 작품을 기반으로 학습하고 인간의 예술과 흡사하게 또는 모방에 가깝게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그리지 않았지만 모방을 한 것 인지 짜깁기를 한 것인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짜깁기와 모방에 해당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가 있지 않나.</p> <p>(2)</p> <p>예술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과 창의적인 부분으로 고유 행동인 것인데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을 보면 “인간”의 예술을 학습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인공지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간작품의 학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술을 창작할 수 없는데 이것이 인간을 따라하고 모방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p> <p>또한 엄청난 빅 데이터를 이용 한다고 하였는데 빅 데이터 자체가 인터넷에 올려온 자료로서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무단으로 이용하여 학습할 수도 있어 저작권 침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도비 AI학습 사건, 일반인들이 AI그림 그려주는 서비스에 무단으로 예술품을 도용하여서 사용)</p> <p>(3)</p> <p>“창작자”의 주체가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서 원래 작가를 사칭하거나 모방하여서 범죄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p> <p>“창작자”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없었던 일 즉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의 그림을 이용한다면 이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튀르키예 비극 이용 ‘후원금 사기’)</p> <p>(4)</p> <p><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언급이 없음></p> <p>오히려 앞서 말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것에 저작권을 부여 한다면 심각한 범죄에 대한 문제에서 저작권과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기반 하여서 범죄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p> <p>(5)추가 질문</p> <p>무엇이든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예술은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여부와 또한 특정 사람의 얼굴을 묘사 하여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창의성을 인정 해야 하나?</p> <p>스페인에서 이미지 생성 AI 이용해서 아동 포르노(딥페이크)를 만들어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 사례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포르노를 집에서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다. 또한 얼굴을 형상을 특정 인물을 첨가하면 더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인공지능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인가?</p>
-----------------------	--

<p>마무리 발언</p>	<p>인간이 특정 시기와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그 결과를 후세에 남기는 위대한 행위이다. 그 안에는 특정 예술가의 사상, 생애, 그 시대 등 다양한 요소가 녹아 있으며 우리는 여기서 인간성을 느낀다. 기계로 점철된 현대에서 예술은 인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길 중 하나이다. Ai는 예술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예술가 그 자체는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AI를 사용하여서 쉽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정하면 안 되고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p> <p>EU에서 AI규제안을 협의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AI인공지능에 대해서 경계해야하며 특히 범죄와 침해문제 또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과 사람의 창작물의 구분성 문제와 다중매체의 AI인공지능의 가짜뉴스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예술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계하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와 악용범죄에 대한 처벌도 만들어야 한다.</p>
----------------------	---

